

여수공항, 이용객 2년 연속 100만명 돌파

전남 동부권 관문 입지 다져...연말 누적 이용객 102만명 예상 양양노선 신규 취항·항공사 재정지원 등 민·관 공동노력 성과

여수공항이 2년 연속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동부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다졌다.

여수시는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 여수공항이 지난 15일 기준 2년 연속 연간 이용객 100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여수공항은 이날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로 표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미에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전남도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기관장 및 유관단체장 그리고 주민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수공항의 쾌거를 축하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미에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은 "내년에는 코로나 규제 완화에 대비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 확장사업 시행과 저비용

항공사 신규취항 및 증편 등을 통해 여수공항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 63만 5000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했던 여수공항은 2020년에 65만 7000여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개항(1972년) 이래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 116만명(전년대비 70% 증가)의 여객수송량을 달성한 바 있어 2022년 역시도 많은 기대가 집중됐다.

여수공항은 코로나19라는 난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자치,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공동대응을 진행하여 양양노선의 신규취항, 항공사 재정지원금 추가 확보, 진에어의 제주노선 신규취항 결정, 공항활성화에 대한 지역관심 제고 등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연말 기준 약 102만명의 누적 이용객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항 취항(1948년) 이후 74년만에 국내선 항공



여수공항은 지난 15일 연간 이용객 100만명 달성을 기념해 유관기관에 대한 감사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로를 표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여객 연간 7000만명 돌파라는 역사와 함께한 여수공항은 내년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와 순천에서 개최되는 순천국제제정원박람회 등과 연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공항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도시 여수의 날개로 자리매김 했다"면서 "앞으로도 여수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도와 협의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노후 공동주택 개선 접수 광양시, 내년 1월 15일까지

광양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까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2023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14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0세대 미만으로 준공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94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예산 10억 원으로 단지별 최대 3000만 원 내에서 노후화된 아파트, 주상복합, 담장 등 주민공동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신설·보수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총예산 3억 원으로 단지별 최대 2000만 원 내에서 노후 담장, 주차장, 소방설비, 수도 배관 등 부대 시설 보수 공사비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외부도색 공사과 방수공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 문화재야행' 문화재청 '명예의 전당' 올랐다

3년 연속 우수사업 선정 전국 첫 '명예의 전당' 헌액 "행사 취지 잘 구현" 평가

'순천 문화재야행(夜行)' 프로그램이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3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2020년부터 3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순천시 문화재청이 시상하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는데, 문화재 야행 부문에서 명예의 전당에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는 순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에서 잠자고 있던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자, 매년 문화재청이 공모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열린 '2022 지역문화재 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문화재야행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

순천부읍성과 남문터광장, 순천향교, 기독교역사박물관 등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지는 순천 문화재야행은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색있는 구성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야행 평가를 담당했던 전문가들도 "전국 50여 개 자치단체에서 문화재야행을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의 취지를 현장에서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곳이 순천이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열린 순천 문화재야행은 장명석등 만들기, 푸조나무 칠보공예 등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호응을 얻었으며, 옛 순천부 읍성터에 도심속 캠핑을 시도해 방문객의 인기를 끌었다.

또 12월에 열린 두 번째 행사에서 군밤굽기 체험 등 겨울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으로 겨울행사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찾는 동시에 유명 한국사 강사와 함께 지역의 역사를 주제로 한 토크쇼를 개최하며 행사의 다양성을 더하기도 했다.

순천 문화재야행은 지난 10월 민간단체인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주관한 제16회 피너클어워드에서 SNS부문을 수상하는 등 순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9월 문화재청 주관의 '2023년 세계유산 축전 공모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생생 문화 재활용사업, ICT 실감 콘텐츠 구축 사업, 종교 문화여행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세계유산에서 순천의 브랜드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고흥군, 연말 교육발전기금 기탁 열기

고흥군수협 1억 등 이달에만 11개 기관·단체서

고흥군의 인재 양성을 위한 연말 교육발전기금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고흥군청 팔영산실에서 교육발전기금 기탁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기탁식에서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사)한국여성기업인연합회 고흥군수협분회는 각각 1억원과 1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맡겼다.

앞서 15일 (주)제주로지스틱스에서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12월에만 11개 기관·단체에서 1억 230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군비 출연과 군민·향우·독지가 등의 기탁금 등 꾸준한 모금 활동으로 조성된 255억원의 기금 중 108억원을 투자해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군, 올 최종 예산 7756억 확정...전년비 896억 ↑

양수시설개발 등 추가...김철우 군수 "내실 있는 운영 주력"

보성군이 올해 정리 추경예산을 기정예산액 6860억원보다 896억원(13.6%) 증가한 7756억원으로 확정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8억원이 증가한 7145억원, 특별회계는 38억원 증가한 611억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0.25%가 증가하며 예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성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안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했고 중앙정부·전라남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련 사업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에 방점을 두고 지난 2014년 이후 채무가 전혀 없는 지자체로서 전국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현안 사업들에 대한 이월과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양수시설개발 5억원, 관정개발 1억 7500만원을 성립 전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고,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에 가뭄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30억원 ▲여자만정정어장 재생사업 25억원 ▲기초연금사업 21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20억원 ▲별교문화복합센터 건립 9억원 ▲민간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4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농부증' 효과 입소문...곡성 농업인재활센터 7000명 이용

곡성군이 '농업인재활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일명 '농부증(근골격계 질환) 치료'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농업인재활센터'가 지난 2월 재개소한 이후 11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7000여명의 집계됐다. 재개소 당시 이용객은 140여명이었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되면서 지역 농업인의 방문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방문객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었으며 근골격계 질환인 농부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농부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고령 농업인의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운동 지도를 제공했다. 의사의 진료와 필요한 농업인은 재활의학과 병원과 연계해 치료와 운동을 병행상담을 통해 운동 지도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